

---

#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견기업 실태조사

---

2013. 12.

☐ 조사목적

- 정부가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2개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.
- 이에 ‘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견기업 실태조사’를 통해 중견기업의 관련 애로를 조사하고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.

☐ 조사대상: 중견기업 126개사(제조업 : 95개사, 비제조업 : 31개사)☐ 조사기간: 2013. 11. 19(화)~26(화)☐ 조사방법: 전화, Fax 및 이메일 조사☐ 조사내용: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견기업의 인식

중견기업의 휴일근로 빈도 및 원인

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견기업의 피해 예상

근로시간 단축 시 중견기업의 대응방안

근로시간 단축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

근로시간 단축 문제의 해결방안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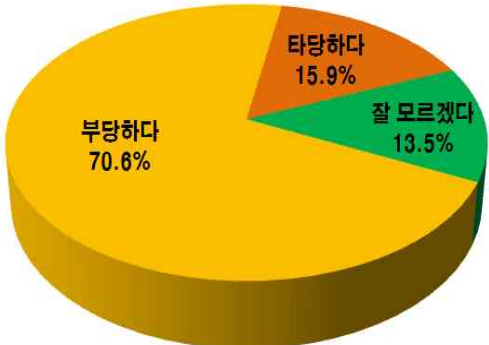
1) 이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조사통계팀 백장미 연구원(☎02-3275-2108)에게 하시기 바랍니다.

## 2 중견기업 통상임금 실태조사 결과

### □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견기업의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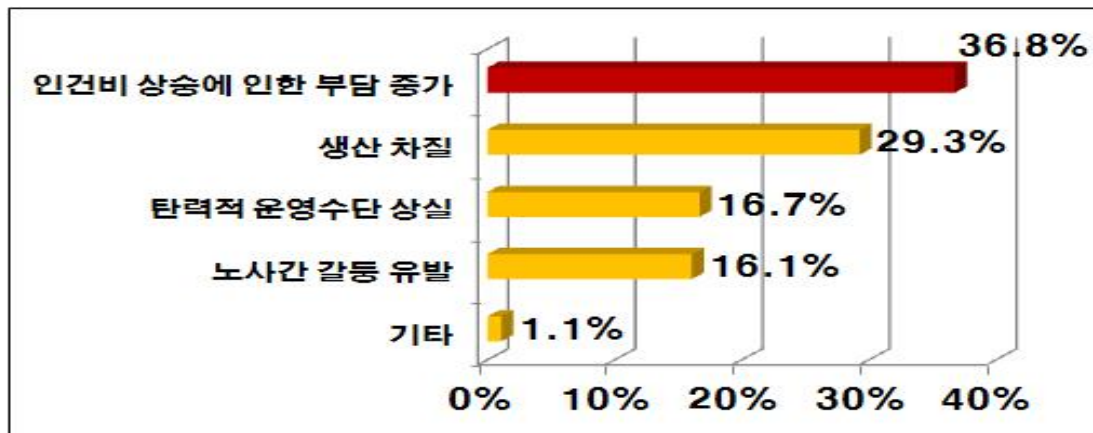
-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중견기업의 70.6%는 '부당하다'고 응답함
  - 전체 응답기업의 15.9%가 '타당하다', 13.5%가 '잘 모르겠다'라고 응답함
- 제조업의 경우 '부당하다'는 응답이 81.0%, 비제조업의 경우 부당하다는 응답이 38.7%로 비제조업에 비해 제조업에 종사하는 중견기업이 훨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남

[표 1]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견기업의 인식

|  | 구 분       | 전체<br>응답비중 | 제조업<br>응답비중 | 비제조업<br>응답비중 |
|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  | 부당하다      | 70.6%      | 81.0%       | 38.7%        |
|   | 타당하다      | 15.9%      | 9.5%        | 35.5%        |
|   | 잘<br>모르겠다 | 13.5%      | 9.5%        | 25.8%        |

- '부당하다'고 응답한 이유로는 '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기업 부담 증가'(36.8%), 납기일 지연·생산량 감소 등 생산 차질(29.3%), 경기 변동에 따른 탄력적 운영 수단 상실(16.7%), 임금문제로 노사간 갈등 유발(16.1%) 순으로 응답함

[그림 1] 근로시간 단축이 부담한 이유



□ 중견기업의 휴일근로 빈도 및 휴일근로 실시 원인

○ 중견기업의 95.2%가 휴일근로 실시 중임

- 중견기업의 50.0%가 가끔 휴일근로를 하고 있으며 45.2%는 자주 휴일근로를 하고 있는 것에 반해 휴일근로를 하지 않는 기업은 전체의 4.8%에 불과함

○ 휴일근로의 빈도에 있어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의 차이가 존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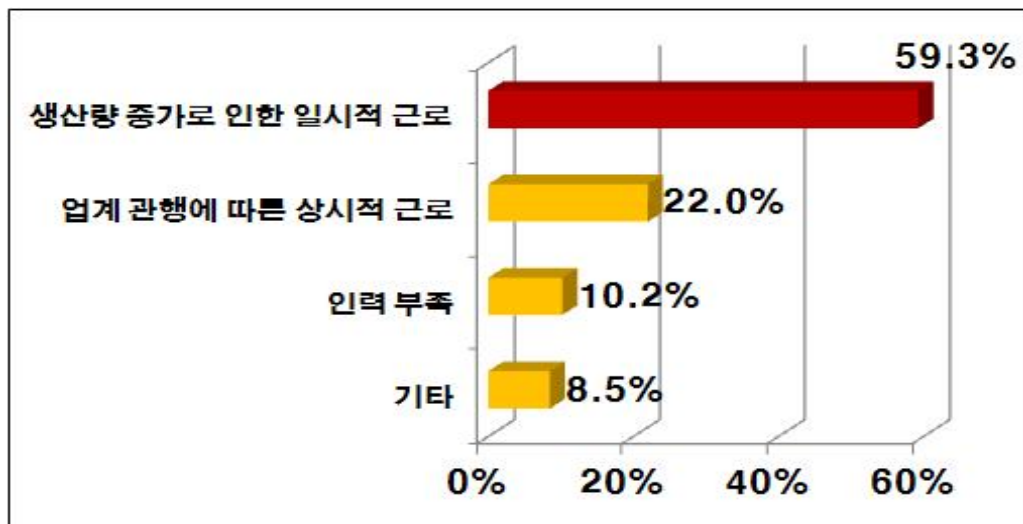
- 휴일근로를 하지 않는 기업 비중은 제조업(4.2%), 비제조업(6.5%)로 크게 차이가 있지 않았으나 휴일근로의 빈도를 살펴보면 제조업은 자주 한다(50.5%)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비제조업은 가끔 한다(64.5%)는 응답이 가장 많고 자주 한다는 응답(29.0%)이 제조업에 비해 훨씬 적게 나타남

[표 2] 중견기업의 휴일근로 빈도

|  | 구 분       | 전체<br>응답비중 | 제조업<br>응답비중 | 비제조업<br>응답비중 |
|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 | 자주 한다     | 45.2%      | 50.5%       | 29.0%        |
|  | 가끔 한다     | 50.0%      | 45.3%       | 64.5%        |
|  | 하지<br>않는다 | 4.8%       | 4.2%        | 6.5%         |

- 중견기업이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이유로는 ‘생산물량 증가로 인한 일시적 휴일근로’(59.3%)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‘업계 관행에 따른 상시적 휴일근로’(22.0%), ‘고용난으로 인한 인력 부족’(10.2%) 순으로 응답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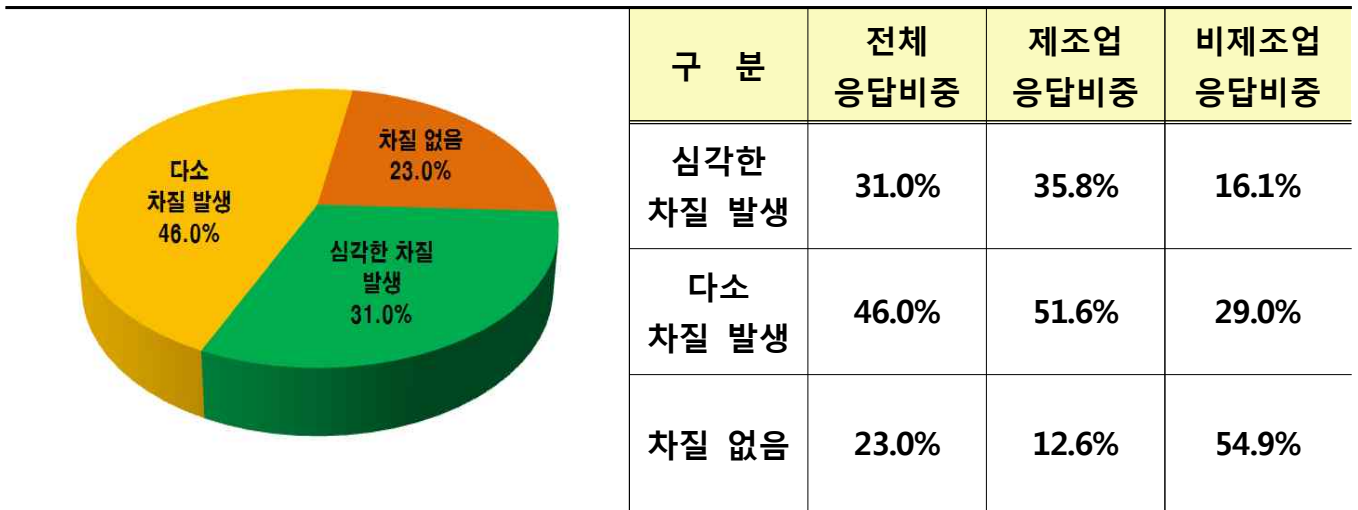
[그림 2] 중견기업이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이유



#### □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견기업의 피해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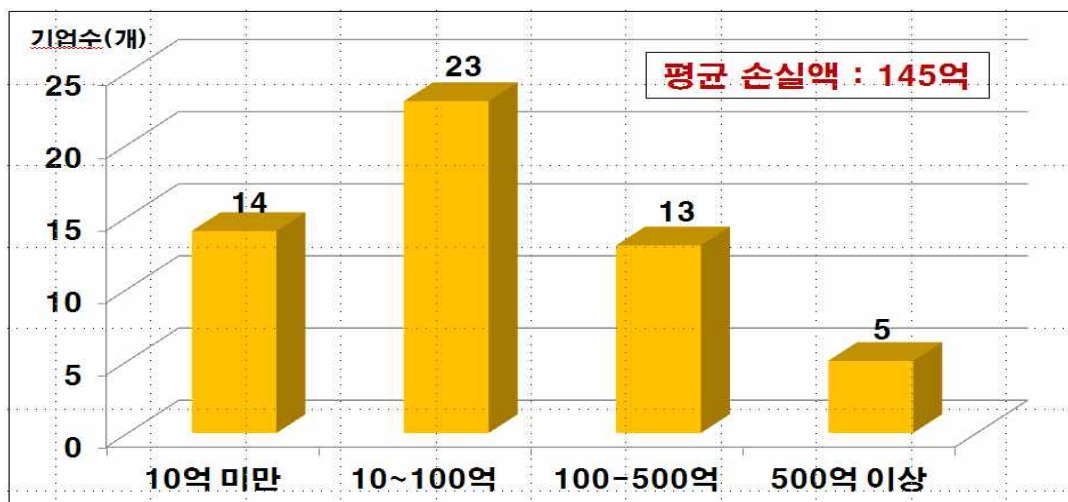
-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중견기업의 77.0%는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
  - 전체 응답기업의 46.0%가 ‘다소 차질이 발생할 것’이라고 응답했으며 ‘심각한 수준의 차질이 발생할 것’(31.0%), ‘차질이 없을 것’(23.0%) 순으로 나타남
- 생산차질 여부에 있어 제조업과 비제조업간의 격차가 크며 제조업체가 특히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됨
  - 제조업의 경우 응답기업의 87.4%가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, 비제조업의 경우 54.9%가 생산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응답함

[표 3]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견기업의 피해 예상



- 총 55개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시 예상되는 손실추정액을 응답함
  - 손실추정액은 신규채용, 자동화 설비 투자 등 추가적인 투자에 대해 비용이 발생 하는 경우와 추가적인 투자를 할 수 없어 생산량 감소로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하여 기업이 직접 기재함
- 10~100억 구간이 가장 높게 도출된 가운데 10억 미만 및 100~500억 구간이 뒤를 이었으며 500억 이상 손실을 예상하는 기업도 존재함
  - 손실추정액이 1억 미만인 곳부터 500억 이상의 손실을 예상하는 기업까지 기업 규모 및 여건에 따라 피해의 규모 역시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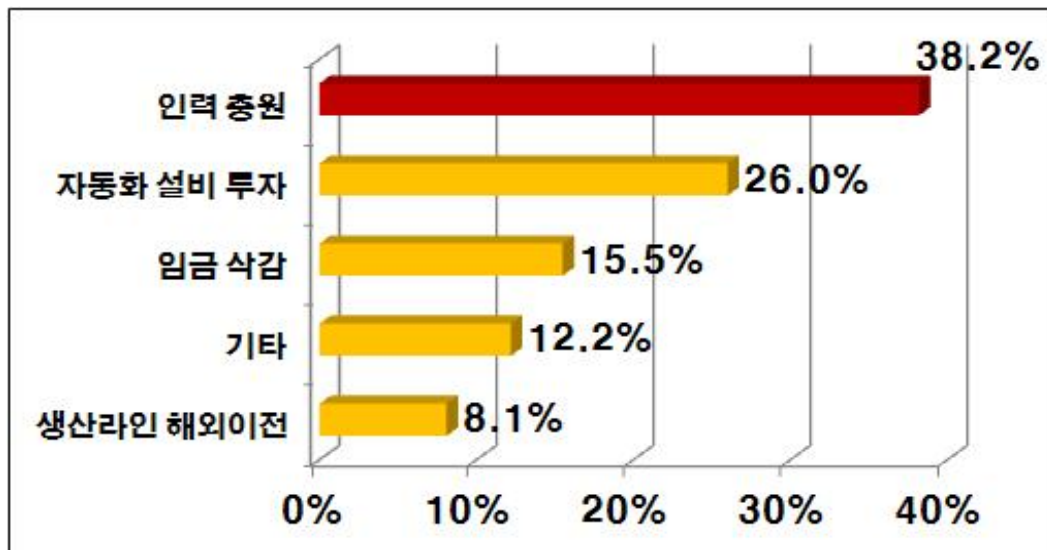
[그림 3]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견기업의 손실 추정액 분포



## □ 근로시간 단축 시 중견기업의 대응방안

- 근로시간 단축 시 대응방안으로 중견기업의 38.2%는 '신규채용을 통한 인력 충원'을 고려하고 있음
- 중견기업이 생각하는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으로는 '신규채용을 통한 인력충원'(38.2%), '인력 대체를 위한 자동화 설비 투자'(26.0%), '임금 삭감'(15.5%), '기타'(12.2%), '생산라인 해외이전'(8.1%) 순으로 나타남
- 기타 의견으로는 '주간 연속 2교대 도입', '외주 도급화' 등 인력 운용의 변화를 모색하는 방안이 거론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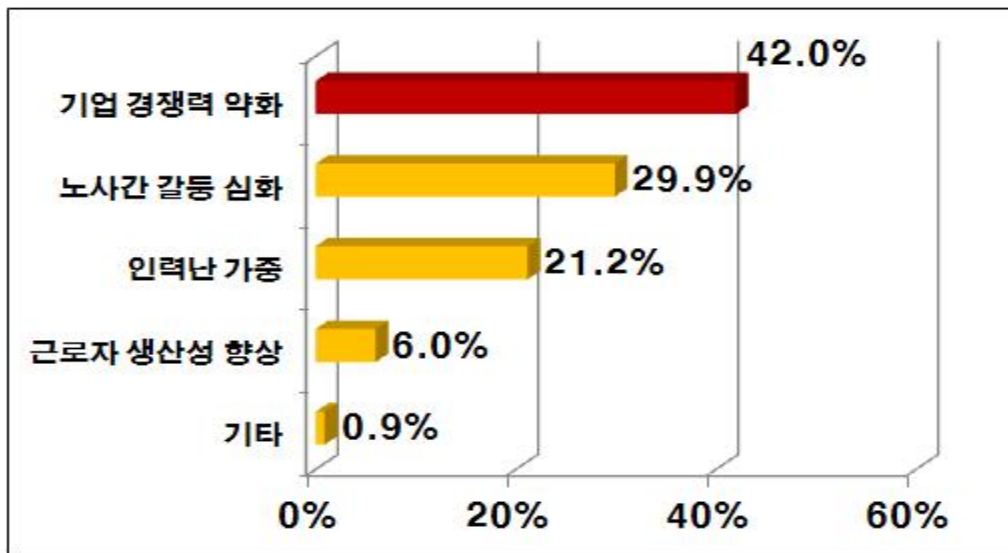
**[그림 4] 근로시간 단축 시 중견기업의 대응방안**



## □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

- 대부분의 중견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(93.1%)
- 중견기업은 근로시간이 단축 될 경우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(복수응답)에 '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약화'(42.0%)를 꼽음. 이어서 '임금 문제로 인한 노사간 갈등 심화'(29.9%), '탄력적 운영(유연화) 수단 상실로 인한 인력난 가중'(21.2%) 순으로 응답하는 등 부정적인 응답이 전체의 93.1%를 차지하였으며 '근로자 생산성 향상'이라는 응답은 6.1%에 불과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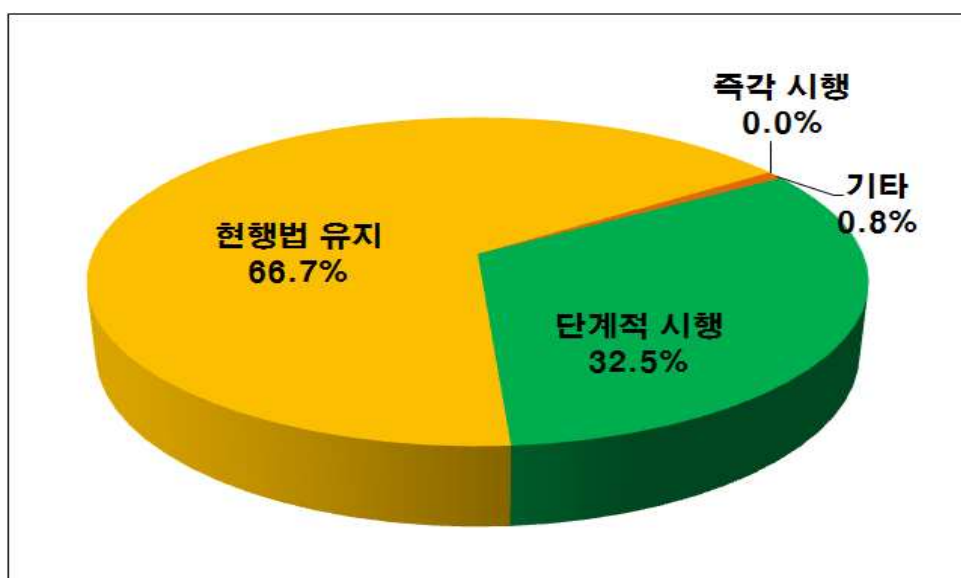
[그림 5]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



#### □ 근로시간 단축 문제의 해결방안

- 중견기업의 66.7%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노사간 자율합의에 맡기는 방안이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응답함
- '근로기준법을 개정하되 단계적으로 시행'해야 한다는 의견이 32.5%로 뒤를 이었으며 '기타'의견이 0.8%로 나타난 가운데 '개정 시 즉각 전면시행'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음

[그림 6] 근로시간 단축 문제의 해결방안





- 근로시간 단축은 신규 채용, 자동화 설비 투자 등 추가투자를 감당하지 못 하는 기업의 생산차질을 야기할 수 있음
  - 중견기업 77.0%가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했으며 이 중에는 100억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기업들도 있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음
  - 이러한 비용급증은 중견기업의 경쟁력 저하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중견기업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됨
- 제조업체의 피해가 특히 심각함
  - 제조업체의 95.8%가 휴일근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과반수가 넘는 기업이 잦은 휴일근로를 실시하고 있는 등 제조업체에 있어 휴일근로는 생산물량 및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남
  - 근로시간이 단축 될 경우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생산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응답한 것을 볼 때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의 피해가 특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
- 중견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임
  -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낮은 인지도, 상대적인 저임금, 빈번한 이직, 지방근무 기피 등의 이유로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<sup>2)</sup>

2) 중견기업은 인력채용 시 대기업에 비해 낮은 인지도(31.3%), 상대적인 저임금(19.6%), 빈번한 이직(18.7%), 적절한 사람이 없음(11.0%), 지방근무 기피(10.1%), 복리후생 미흡(3.7%), 열악한 작업환경(2.4%)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도출됐다.(2013 중견기업 실태조사, 755개 중견기업 응답)

- 근로시간 단축 시 생산차질이 없으려면 신규인력채용이 필수적이나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다르게 지원자가 적고 채용이 여의치 않아 특히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됨

□ 근로자 임금 문제로 인한 노사간 갈등이 심화될 것임

-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근로자는 휴일근로를 실시하지 않게 되어 해당 수당만큼의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기업은 손실액 충당을 위해 임금 삭감도 고려하고 있음
- 근로시간이 단축 시 근로자들의 임금보전 요구와 신규 채용 등에 필요한 자금 충당을 위한 기업 측의 임금 삭감 등을 요구가 서로 충돌할 것으로 보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사간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 우려됨

□ 현행 근로기준법을 유지하고 노사간 자율합의에 맡기는 것이 타당함

-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경영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에게도 임금 문제, 사측과의 관계 등에 있어 부정적 요인이 큼
- 개정안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강제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개정을 강행하는 것보다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각 기업의 노사간 자율합의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